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3강 '이 장면을 아시나요'

한국 첫 '라스칼라' 주역 김동규 성악가

배움·감동 채운 클래식 산책...원우들 '환호'

작품 중심 음악사 흐름 설명·명곡 시연
하세훈 테너·신홍규 바리톤도 함께 해
박수 갈채·앵콜 요청 등 열기 뜨거워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주역에 오른 바리톤 김동규 성악가가 클래식의 본질과 매력을 쉽고 친근한 언어로 풀어내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우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3강이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은 김동규 성악가를 초청해 그의 저서 제목과 같은 '이 장면을 아시나요'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성악가는 클래식을 어렵고 멀게 느끼는 대중의 시선부터 짚으며 강연의 문을 열었다.

그는 "클래식은 뜻사는 음악,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 모든 음악의 기초"라며 "음악은 인류가 생겨나면서 가장 가까이에 인간을 위로해 온 장르"라고 말했다.

강연은 단순한 해설에 머물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문명,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거쳐 바흐, 헨델,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가 이르는 클래식 음악사의 큰 흐름을 김 성악가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냈다.

전문적인 이론보다는 시대를 바꾼 작곡가들의 삶과 성격, 작품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해 원우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그는 "1885년에 작곡한 사람의 노래를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3강 강사로 나선 바리톤 김동규 성악가가 지난 21일 광주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하세훈 테너·신홍규 바리톤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지금도 부르기 어렵다. 그것이 바로 클래식의 매력"이라며 클래식이 지닌 시간의 깊이와 변하지 않는 기술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천지 차이"라며 "클래식의 역사를 알게 되면 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 중간 중간 직접 노래를 부르며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그때마다 원우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 성악가는 1966년 발표된 이탈리아 곡 'Il Mando'를 시작으로 한국 가곡 '봄처럼', 대중가요

'한사람', 오페라 '투란도트'의 대표 아리아 'Nessun dorma', 'Take me home', 마지막 곡 'A Lover's Concerto'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무대를 채웠다.

특히 클래식과 가곡, 대중음악 모두에 자신만의 해석을 입히며, 같은 곡이라도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무대에는 김동규 성악가의 제자이자 20여년간 함께 활동해 온 하세훈 테너와 신홍규 바리톤도 함께했다.

이들은 김 성악가와 호흡을 맞추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 덕에 현장의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노래가 이어질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강연 말미에는 앵콜 요청도 이어졌다.

김 성악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원우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마지막까지 호응했다. 강연 후 원우들은 클래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시간이었다고 너도나도 만족감을 표했다.

이연성 기자

보해양조,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힘 보탠다

'여수바다' 소주 50만병에 홍보 라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보해양조와 손잡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 나선다.

조직위는 22일 "전날 보해양조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현구(사진 가운데)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현준(사진 오른쪽 두 번째) 보해양조 영업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보해양조는 지역 대표 소주 '여수바다' 제품에 박람회 홍보 라벨을 부착해 5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여수 지역 내 약 50만병을 유통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2019년 '여수밤바다'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으며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수바다'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품 라벨에 멸종 위기 해양동물 상평이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해양 생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은 "지역 기업인 보해양조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려 준 힘이 된다"며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2개월간 여수 돌산 진도지구, 개도·금오도 일원,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담양교육지원청 '청죽골 학부모회 연합회' 총회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학부모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죽골 학부모회 연합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전년도 임원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연합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 감사 1명 등 신규 임원진을 선출했다. 참석자들은 새 임원진을 중심으로 올해 연간 활동 계획과 연합회 네트워크 운영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유기적인 교육 활동 지원 의지를 다졌다.

김진홍 교육장은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거대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학부모회의 자율적



인 소통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담양 교육을 위해 차질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맞춤형 인력 양성 모색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현택 공동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안건인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 훈련사업'의 세부 지원 방향과 육성 산업 선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중동 분쟁 여파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재직자의 직무 전환과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돕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현택 공동위원장은 "빠른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맞춤형 훈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시교육청 '설렘 가득한 출근길 북모닝' 행사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본청 로비에서 '설렘 가득한 출근길 북(Book)모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일상속에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우리 팀 다 함께 매일 독서' 선포식 ▲전 직원이 함께하는 '독서 명언 트리' 만들기 ▲'광주 학생,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출판도서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박선욱 기자

박홍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차기 회장 당선



박홍주(사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달 17-19일 열린 제67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8년 4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이 차기 임기 시작 시 회장으로 자동 승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박 교수는 향후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1989년 창립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구강, 악안면, 턱 영역의 질환 치료뿐 아니라 학술 연구, 전문의 수련, 교육과정 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표준과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전남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임상 연수를 받았다.

박홍주 교수는 "차기 회장 당선은 전남대의 임상과 학술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향후 학회 운영을 통해 국내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교통공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2명 배출



광주교통공사가 철도차량정비기능장 2명을 배출했다. 22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차량팀 하남태·이하연 대리가 최근 실시된 제79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철도차량정비기능장에 최종 합격했다.

철도차량정비기능장은 철도차량 정비·검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게 부여되는 국가자격으로,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한 핵심 전문 인력으로 평가된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기능장 합격으로 차량팀 철도차량기술사 1명을 포함해 철도차량정비 및 전기기능장 등 총 24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게 돼 2호선 개통에 대비한 전동차 정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수희 기자

GIST 강철·이나영씨 부총리 표창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22일 '제59회 과학의 날' 제기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강철 수석연구원과 이나영 선임행정원이 연구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홍보·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미래우주국방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철 수석연구원은 2006년부터 테라헤르츠(THz) 광학 분야를 선도해 왔다.

이나영 선임행정원은 연구 성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며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선욱 기자

결혼

▲권영일·최미주씨 아들 오현군, 김준수(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박미경씨 딸 다솜양=26일(일) 오후 2시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서울 강남구 학동로47길 5), 010-5256-5250.

부음

▲김혜덕씨 별세, 임은희(나주연극협회장)씨 모친상, 김진호(전남예술극단 예인방 이사장)씨 장모상=발인 23일(목) 오전 8시 광주 남문장례식장 303호(062-675-5000).